

▶ 소비자·가족자원경영분과

가정내 변혁적 리더십 수준과 가정생활건강성*

-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

박 미 석(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수)

김 경 야(숙명여자대학교 숙명리더십개발원 조교수)

현대사회는 리더가 아닌 상호 수평적인 부드러운 리더십을 요구한다. 리더십은 생득적 능력이 아닌 누구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역량이다. 과거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가족관계에서 탈피하여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새로운 가족관계 정립을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기혼 여성은 가정을 경영하는 리더로서의 리더십 함양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으로서 기혼여성의 가정내 변혁적 리더십의 역량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가정내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우선 조직내 변혁적 리더십을 다룬 선행연구인 MLQ(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 I-6S를 토대로 가정상황에 맞게 문항들을 재구성하였다. 다음, 문항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안면타당도(face validity) 검사 및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기혼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자료처리는 SPSS/PC WIN과 LISREL 8.0ver를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의 가정내 변혁적 리더십 역량은 양호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하위영역별로는 카리스마, 개별적고려, 지적자극의 순으로 나타나 기혼여성이 가정의 비전을 창조하고 가족을 섬기는 카리스마 리더십의 자질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내외통제성과 사회적지지 등으로, 기혼여성 스스로 자신에 대한 통제감을 지니고 주위로부터의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할 때 리더십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기혼여성이 인지하는 가정생활건강성은 전체적으로 중간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서, 비교적 기혼여성들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가계총소득, 내외통제성, 사회적지지가 기혼여성의 가정생활건강성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셋째, 기혼여성의 변혁적 리더십 수준에 따라 가정생활건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기혼여성의 가정내 변혁적 리더십의 발휘는 가족원 개개인의 욕구를 초월하여 가정의 비전성취를 위한 역할모델을 제시하고 동기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정의 긍정적 문화창출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기혼여성의 가정생활건강성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비교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주부의 리더십 역량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초석일 뿐 아니라 가정의 건강성을 강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변혁적 리더십의 발휘는 곧 가족원 개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셀프리더십을 유도하고 나아가 가정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슈퍼리더십의 역량을 지니는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4-BS0030)